

[1] 수도권 안에서 어떠한 경우라도, 어떤 이가 다른 이를 감히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이니, [2] 비록 가까운 어떤 친척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.

[3] 또한 수도승들은 이런 일을 어떤 모양이든지 감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, 다툼들이 (일어날) 크나큰 기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. [4] 만일 누가 이 규칙을 어기거든 아주 엄하게 책벌할 것이다.